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### 2010년도 주요 생명보험회사 결산 결과, 영업이익 감소

- 2010년도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의 결산 결과,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급보험금 및 급부금 증가의 영향으로 대부분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함.
  - 방카슈랑스의 판매 확대로 8개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보험금 및 급부금(1,900억엔)이 지급되면서 10개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영업이익이 감소함.
  - 방카슈랑스 전략에 소극적이었던 제일생명의 경우 수입보험료 급감에 따라 60년 만에 업계 3위로 밀려난 반면, 업계 2위로 상승한 메이지생명도 방카슈랑스에서 판매액이 두 자리수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채널의 판매실적을 처음으로 넘어섬.
  - 미츠이생명은 일시납 종신보험의 판매가 늘어나 2년 만에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, 아사히생명도 방카슈랑스 판매가 늘어나 4년 만에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됨.
- 투자영업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되어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입음.
  - 특히, 일본생명과 제일생명은 원전사고의 주범인 동경원전의 대주주로 주가급락으로 인해 각각 1,402억엔과 1,796억엔의 평가손실을 입었으며, 나머지 생명보험회사들도 자산운용실적이 악화됨.
- 한편, 금융청이 2010년도부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신 솔벤시마진 비율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, 13개사에서 평균 40% 이상 하락함.
  -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신 기준은 투자리스크가 높은 유가증권에 대한 산출기준을 엄격히 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주식 등을 보유할 경우 비율이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,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주식매각이 금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(bloomberg 5/26, 후지산케이 5/27, 보험매일신문 5/30 뉴스 종합)